

특별강연 2  
지역 불균형



## 지역 불균형 : 2003년 협약에 따른 인가 NGO의 균형 대표성 문제

마티 하카마키

핀란드민속음악원

비정부기구(NGO)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을 이룬다. 유엔은 정부나 주 정부에 속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조직에 유엔의 집회 및 회의에 옵서버의 지위를 부여한다.<sup>1)</sup> 유네스코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와 함께 이들의 역량 분야에서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수년 동안 구축해왔다. NGO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식된다. 진행 중인 검토 과정에서는 NGO가 수행할 수 있는 몇몇 역할이 지적되었다. i) 아이디어와 영감을 실천하는 실험실 ii) 보호조치 및 등재된 종목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여 iii) 보호 경험을 보다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잘 조직된 NGO iv) 인식제고와 역량 구축 및 강화에 있어 NGO의 역할 v) 위원회와 종합성과평가체계(Overall Results Framework) 및 지역 보고서에 등재된 종목의 상태에 관해 보고하는 NGO의 가능한 역할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3년 협약<sup>2)</sup>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과 세계관이 다른 문화가 가능하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80개이며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sup>3)</sup> 유네스코는 선거와 관련해 세계를 6개 선거 그룹, I) 서유럽 및 북미 II) 동유럽 III)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IV) 아시아태평양 V(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V(b)) 아랍으로 편성한다.<sup>4)</sup> 2010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NGO 97개를 인가한 이후 인가 NGO는 2020년 현재 193개로 늘었지만, 인가 NGO의 50% 이상이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 위치해 지역적 분포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룹 V(b) 아랍에 속하는 NGO는 4%, 그룹 II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해당하는 NGO는 5%에 불과하다. 무형유산 NGO 포럼은 유네스코 인가 NGO들 간의 소통, 네트워킹,

1)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3470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3470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 (a) 무형유산의 보호

(b)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c)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d)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3) <https://pax.unesco.org/la/convention.asp?language=E&KO=17116>

4) 『기본 이론서 *The Basic Texts*』 2020, 부록 2, I.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6826.page=65>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비공식 플랫폼으로 2009년에 결성되었다. 포럼은 규약과 윤리원칙, 각 선거 그룹을 대표하는 6인과 국제 NGO를 대표하는 NGO로 구성된 7인의 운영위원회를 갖춘 보다 공식적인 NGO 조직으로 거듭났다.

2017년 12.COM 결정에서 인가 NGO의 자문 역할에 관한 검토 과정에 착수했을 때, 총회, 위원회, 사무국은 인가 NGO의 불균형한 지역 분포를 주요 문제 중 하나로 파악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운영 기구의 많은 작업 문서에서 언급되었다. 위원회와 총회는 “인가 NGO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소대표(under-represented) 선거 그룹의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NGO가 되도록 빠른 기회에 인증 신청을 제출하도록 거듭 장려하고, 과소대표 선거 그룹에 속하는 당사국에게 지역에 활동하는 NGO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널리 알리도록” 권했다. 14.COM 15에는 “당사국, 무형유산 NGO 포럼, 인가 NGO, 카테고리 2센터,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가 NGO와 향후 인가 신청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NGO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과소대표 지역의 NGO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근 활동 중 하나로 인가 무형유산 NGO의 지역 불균형을 다루는 무형유산 NGO 포럼의 워킹그룹 수립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핀란드 NGO인 핀란드민속음악원에서 제안했고 무형유산 NGO 포럼 운영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20년 8월 31일 무형유산 NGO 포럼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워킹그룹의 참여를 초대하고 2003년 협약에 따른 인가 NGO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03년 협약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가 NGO 5개와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한 명을 비롯해 총 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6개 선거 그룹 중 4개 그룹(I, II, III 및 IV)에 해당한다.

‘과소대표 지역의 해당 NGO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다.

- ▶ 지방/지역 여건 파악의 중요성
  - 소지역 전략 수립
  - 지역거점(인가 NGO 또는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
  - 중개인의 네트워크(인가 NGO 및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
- ▶ 인식제고 - 톨킷 제작

- 인가 경험을 다른 지역 영상
- 인터뷰
- 브로슈어
- 미디어, 웹페이지, 소셜 미디어 활용
- ▶ 지역 활동
  - 인가과정 및 협약과 관련한 경험 공유를 다룬 웨비나
  - 무형유산과 관련한 NGO 개요 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협력할 의사가 있는 과소대표 지역의 무형유산 NGO 및 무형유산 전문가를 제안해” 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해, 보다 일반적인 제안이 이루어졌다.

- ▶ 협약의 이해당사자에게 지역적 요청
- ▶ 협약의 목표와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관련자(무형유산 보유자, 학계 및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간위원회
  - 새로운 워킹그룹을 통한 무형유산 NGO 운영위원회
- ▶ NGO에 연락해 인가 신청이 거절당한 이유 설명
- ▶ 인가 NGO의 네트워크 활용
- ▶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후보에게 연락
- ▶ 협약의 네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등재 신청/요청에 직접 참여한 NGO에게 연락

이 설문조사는 협약의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https://forms.gle/nUdns9g9kHYXXY2v6>).

인가 NGO의 세계적 지역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의 일원이 되어 정기적인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5명이다. NGO 4곳과 전문가로 참여를 원하는 2명으로, 6개 지역 가운데 3개를 대표한다(선거 그룹 I, II 및 III). 무형유산 NGO 포럼의 규약에는 한 NGO가 포럼의 워킹그룹으로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다.<sup>5)</sup>

5) 제33조 : 새로운 워킹그룹은 5개 이상의 인가 NGO가 서명한 청원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www.ichngoforum.org/wp-content/uploads/2013/03/ICH-NGO-Forum-Bylaws-adopted.pdf>

워킹그룹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가능한 조치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선거 그룹 IV, V(a), V(b)에 속하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지식이 워킹그룹에서 대표성을 갖고 무형유산 NGO 포럼의 공식적인 워킹그룹으로 자리하기 위해 중요하다.